



해외통관 애로 해소해 드려요

III 추진 배경

- ▶ 해외 통관장벽 해소를 위해 단계적 해소 체계를 구축하여 수출기업을 지원 합니다.

III 주요 내용

▶ 문제점 파악 및 전담팀 구성(인지·예방)

- 국내 및 해외 다양한 경로를 통해 통관 장벽을 적극 발굴하고, 지자체, 지역별/산업별 협회 등과 연계하여 정기 설명회 개최 및 통관애로 상담, 홍보활동 전개하고 있습니다.
- 전문가로 구성된 『통관애로 현지 기동팀』을 가동하여 중소·중견기업 중심의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국가별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.

▶ 통관애로 해소 지원(직접 대응)

- 통관규제 다발 국가와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, 관세관이 미파견된 통관분쟁 다발 지역(중국 칭다오, 대련 등)에 협력관을 파견하는 등 분쟁대상 기업 맞춤형 대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
-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세관의 FTA 특혜 배제, 과도한 세금부과와 관련된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소 지원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 기동팀을 파견하여 지원합니다.

▶ 제도·시스템 개선(대응능력 저변 확대)

- AEO기업에 통관절차 혜택을 교역국 간 부여하는 상호인정약정(MRA) 체결을 확대하고,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확대로 통관애로 빈발국가와 세관당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해 나갑니다.

【붙임】 주요 통관애로 해소사례

① 수출 중소기업의 FTA 특혜 배제위기 해소

(내용) C사 상해법인인 베트남에서 차량용 카메라 렌즈 등을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해 왔으나, 상해해관은 동 물품의 한국경유를 이유로 특혜 배제 통보

(활동) ① 상해 관세관 피해사실 확인 ② 검토결과 인천공항에서 추가 가공없이 환적 ③ 인천공항세관 과거 환적 건에 대한 미가공 증명서 발급 ④ 상해해관에 관련자료 제출, 해명 → 상해해관 관세 미추징 결정(11억원 절감)

② 중소기업 수출계약 무산위기 해결

(내용)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는 미국 B사와 2천만불 상당의 수출계약 체결 과정에서, 미국 측이 AEO 인증획득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계약 무산 위기

(활동) ① 관세청 긴급지원팀 편성 ② 신속한 심사진행으로 AEO 공인인증 조기 완료(인증절차를 3개월로 단축) → 2천만불 상당의 수출계약 정상 체결

③ 우리 수출 주력품의 품목분류 국제분쟁 승소

(내용) S전자가 수출하는 「갤럭시 기어」에 대해 인도·터키·태국 등에서 시계(관세 4~6%)로 분류하여 관세 부과

(활동) ① 사실관계 확인 ②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대응논리 개발 ③ WCO HS위원회 안전 상정 ④ 2차에 걸친 위원회를 통해 무선통신기기(관세율 0%)로 결정 → 연간 약 150억원 이상의 관세비용 절감

④ 현지기동팀 파견을 통해 외국세관의 왜곡된 품목분류 정정

(내용) H사의 수출물품(가스절연 개폐장치, 0%)을 인도세관에서 회로단속용 개폐기(관세 5%)로 분류하여 통관보류 및 관세(총 1,300만불) 추징 통보

(활동) ① 수출업체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 ②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청 분류의견서 제공 ③ 현지 기동팀 파견, 인도 세관당국 면담 및 협조 요청 ④ 우리측 품목분류 의견 수용 → 가스절연개폐장치(0%)로 분류, 약 150억원 비용절감

⑤ 세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관지체 해소

(내용) L사 수출 LCD TV 부품에 대해 폴란드 관세청이 기상, 전산시스템 불안정 등을 이유로 통관을 지연, 약 10만대의 LCD TV 생산라인 가동 차질 위기

(활동) ① 긴급 처리사안으로 분류, 현지 상황 파악 및 대응책 마련 ② 수작업 통관 등 현지 관세청 설득 논리 개발 ③ 관세청장 서신 발송 ④ 현지 기동팀 파견, 현지 세관 협조 요청 → 즉시통관으로 기업손실 50억원 방지